

## 靑丘永言(173~202)

### 最樂堂

朗原君 諱侃 字和叔 號最樂堂 宣祖大王之孫 仁與君之子

### ◎작자소개

**최락당** (낭원군 郎原君: 1640~1699) 본명은 이간(李侃). 호는 최락당(最樂堂)이다. 선조의 12째 아들 인흥군(仁興君)의 아들이며 효종의 당숙이다. 왕실 작가 중 가장 많은 시조 작품을 남겨 총 30수의 시조가 전한다. <청구영언>의 진본에 20수가 전하고 나머지는 여러 시조집에 산재한다. 그의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작품에 대한 다소의 평이 있다. 금서생활(琴書生活)에 낙사무궁(樂事無窮)함을 자랑하며 취흥에 도도하면 유영(劉伶), 이백(李白)이래로 혼자만이 취흥을 안다고 자랑하는 노래들로 자신의 풍류를 담고 있다. 오륜과 향당의 예법에 관한 노래와 자신의 수분(守分)생활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표현기법에서 정철이나 황진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여 이는 선인들의 작품을 애독한 때문이라고 한다. 형 낭선군(郎善君)과 함께 전서·예서를 잘 써 송광사, 백련사의 사적비등을 남겼다. 왕족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시·음주·음률·서예 등을 즐기는 생활로 예술적 생애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 ◎작품소개 및 해석

173.

|  |   |
|--|---|
| 淨友停도라드러最樂堂閑暇흔디<br>琴書生涯로樂事   無窮하다마는<br>이밖과 淸風明月이야어니그지이시리. | ▶금서생애(琴書生涯): 거문고와 책으로 즐기는 한가한 생활.<br>▶낙사무궁(樂事無窮): 즐거운 일이 끝이 없음.<br>▶밖과: 밖에 ▶어니: 어느, 무슨 ▶그지: 끝 |
|--|---|

정우정 돌아들어 최락당 한가한데 \*정우정 최락당: 낭원군의 호를 딴 서당  
거문고와 서책으로 즐기는 생활은 즐거움이 끝이 없다마는  
이밖에도 청풍명월이야 이 즐거움이 어찌 끝이 있으리요.

174.

|   |  |
|---|--|
| 山은잇건마는물은간디업다<br>晝夜로흐르니나쁜물이이실소냐<br>아마도千年流水는나도몰라호노라 |  |
|---|--|

산은 잇건마는 물은 간 데 없다  
주야로 흐르니 남은 물이 있을소냐  
아마도 천년을 흐르던 물도 나도 몰라 하노라.

175.

|  |  |
|--|--|
| 달은언제나며술은누삼긴고<br>劉伶이업슨後에太白이도간디업다<br>아마도무를디업스니홀로醉코놀리라. | ▶삼기다: 지어내다, 만들어내다<br>▶유영(劉伶): 주덕송을 지은 중국의 시인<br>▶태백(太白): 이태백 |
|--|--|

달은 언제쯤 떠오르며 술은 누가 만들 것인가  
 유영이 없는 후에도 태백이도 간 데 없구나  
 아마도 물어볼 데가 없으니 나 혼자 맘껏 취하고 놀리라.  
 \*아마도:시조 첫 장, 첫 머리에 흔히 쓰이는 감탄사로서 '그럴 것 같다'는 뜻으로 많이 쓰임

176.

|   |  |
|---|--|
| 이도聖恩이오더도聖恩이라<br>모도신公子님니아는가모로는가<br>眞實로이뜻을으라서同樂太平호오리라 | ▶모도신<모도다: 모으다<br>▶동락태평(同樂太平): 함께 즐기며 편안하게 지내다. |
|---|--|

이도 성은이요 저도 성은이라  
 모이신 공자님네 아는가 모르는가  
 진실로 이 뜻을 알아서 함께 즐기며 편안히 지내오리다.

177.

|  |   |
|--|---|
| 이술이天香주   라모다대되슬타마소<br>令辰에醉후에解醒杯다시호새<br>호물며聖代를 만나아니醉코어이리. | ▶천향주(天香酒):하늘이 내린 향기로운 술.<br>▶영신(令辰): 좋은 때<br>▶해정배(解醒杯): 해장술<br>▶모다·대되: 모두 ▶슬타: 싫다 |
|--|---|

이 술이 천향주라. 우리 모두 다 싫다 마소. \*태평성대:현명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시대  
 좋은 때 취한 후에는 해장술을 다시 하세.  
 하물며 태평성대를 만났으니 아니 취하고 어찌하리오.

178.

|   |           |
|---|-----------|
| 天寶山內린물을金谷村에흘려두고<br>玉流堂에지은뜻을아는다모르는다<br>眞實로이뜻을알면날인줄알리라. | ▶느리다: 내리다 |
|---|-----------|

천보산 내린 물을 금곡천에 흘려두고  
 옥류당 지은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진실로 이 뜻을 알면 날인 줄을 알리라.

179.

|   |                      |
|---|----------------------|
| 玉流堂조타말듯고金谷村에드리가니<br>天寶山下에玉流水入뿐이로다<br>두어라樂山樂水를알리업서호노라. | ▶요산요수(樂山樂水):山水를 좋아함. |
|---|----------------------|

옥류당 종단 말 듣고 금곡촌에 들어가니  
천보산하에 옥류수뿐이로다  
두어라 요산요수를 알리 없어 하노라

180.

|   |  |
|---|--|
| 山아首陽山아伯夷叔齊어디가니<br>萬古淸節을두고간줄누아드니<br>어즈버堯天舜日이야親히본가호노라 | ▶어즈버: 아아, 아아 슬프다<br>▶만고청절(萬古淸節): 한없는 세월의 깨끗한 정절. |
|---|--|

산아 수양산아 백이 숙제 어디가니  
만고청절을 두고 간 줄 누가 알더니  
아아, 요천순일이야 친히 본가 하노라

181.

|   |   |
|---|---|
| 太公의釣魚臺를계유구러츠자가니<br>江山도그지업고志槩도새로왜라<br>眞實로萬古英風을다시본듯하여라. | ▶계유:겨우 ▶구러:다시<br>▶지개: 어떤 사물을 이루려는 의기, 의지와 기개. ▶만고영풍: 만고에 끼친 빼어난 기품<br>▶태공의 조어대: 강태공이 위수빈에서 낚시할 때 앉은 곳 |
|---|---|

태공의 조어대를 겨우 다시 찾아가니  
강산도 끝이 없고 지개도 새로워라  
진실로 빼어난 기품을 다시 본 듯 하여라.

182.

|  |  |
|--|--|
| 灤河水도라드니師尙父의釣機로다<br>渭水風煙이야古今속에다를소나<br>어즈버玉璜畢事를친히본듯하여라 | ▶조기: 낚시질 하는 자리<br>▶위수풍연(渭水風煙): 물 이름 바람 연기<br>▶고금(古今):옛날과 지금. |
|--|--|

난하수 돌아드니 바로 사상부의 낚시하던 곳이로구다  
위수풍년이야 옛과 지금이 다를소나  
아아, 옥황필사를 친히 본 듯 하여라.

183.

|   |         |
|---|---------|
| 首陽山느린물이釣漁臺로가다호니<br>太公이낙던고기나도낙가보련마는<br>그고기至今히업스니물동말동호여라. | ▶호니: -니 |
|---|---------|

수양산 내린 물이 조어대로 가더니  
 태공이 낚던 고기 나도 낚아 보련마는  
 그 고기 지금 없으니 물을 듯 말 듯 하여라.

184.

|   |   |
|---|---|
| 日月도네과갓고山川도依舊호되<br>大明大物은속절업시간되업다<br>두어라天運이循環호니다시불가호노라. | ▶의구(依舊)호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거<br>늘.<br>▶대명대물(大明大物): 대 명나라의 문화와 산<br>물. ▶네: 예, 옛적. ▶속절업다: 속절없다 |
|---|---|

명월도 옛날과 다름없고 산천도 예전과 다를 바가 없거늘  
 대 명나라의 문화와 산물은 속절없이 간 곳이 없구나  
 그래도 천운이 순환하니 대 명나라의 천지를 다시 볼까 하노라.

185.

|   |  |
|---|--|
| 笛童을아피세고楓嶽을츠자오니<br>神仙은어디가고鶴巢만나만논고<br>아무나赤松子만나면날왔더러닐러라. | ▶알피: 앞에 ▶세다: 세우다<br>▶적동: 피리부는 아이<br>▶풍악(楓嶽): 단풍나무가 있는 큰 산.<br>▶학소: 두루미, 학의 보금자리. |
|---|--|

적동을 앞에 세고 풍악을 찾아오니  
 신선은 어디가고 두루미만 남았논고  
 아무나 적송자 만나면 내가 왔더라고 일러라.

186.

|   |                                |
|---|--------------------------------|
| 平生에일이업서山水間에노니다가<br>江湖에넘자되니세상일다니제라<br>잊더타江山風月이그벗인가호노라. | ▶넘자: 임자 ▶ 잊더타: 어찌하여<br>▶괴: 그것이 |
|---|--------------------------------|

평생에 일이 없어 산수 간에 노닐다가  
 강호의 임자 되니 세상 일 다 잊어라  
 어찌하여 강산풍월이 그것이 벗인가 하노라.

187.

|   |   |
|---|---|
| 天恩이갓이업서代마다덮혀두고<br>太平聖世에가플길이어려워라<br>두어라爲國忠心を永世不忘호오리다 | ▶갓이업다: 가없다, 끝없다 ▶덮다: 덮다<br>▶위국충심(爲國忠心): 나라를 위한 충성스런<br>마음.<br>▶영세불망(永世不忘): 영원히 잊지 않음. |
|---|---|

천은이 끝이 없어 대마다 덮어두고  
 태평성세에 갓을 길이 어려워라  
 두어라 나라를 위한 이 충성스런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자 한다.

188.

|  |   |
|--|---|
| 石上에自枯桐을석자만베어내면<br>一張玄琴이自然이되련마는<br>아마도高山流水를알리업버서호노라 | ▶버히다: 베다, 자르다<br>▶고산유수(高山流水): 높은 산에 흐르는 물 |
|--|---|

석상에 자고등을 석자만 베어내면  
 일장현금이 자연히 되련마는  
 아마도 고산유수를 알 이 없어 하노라.

189.

|   |   |
|---|---|
| 솔아심긴솔아네어이심겼는다<br>遲遲澗畔을어디두고예와섯는<br>眞實로鬱鬱昏晚翠를알리업서호노라. | ▶심긴: 심어진   ▶심겼는다: 심어졌는가<br>▶지시간반: 느릿느릿 흐르는 산골짜기 냇가<br>▶울울한 만취: 울울창창 무성한 숲이 늦도록<br>푸른빛을 지니고 있는 |
|---|---|

소나무야 너는 어떻게 심어졌기로  
 느릿느릿 흐르는 산골짜기 냇물 가를 어디 두고 혼자 여기와 서 있느냐?  
 소나무의 무성한 숲이 늦도록(언제까지나)푸른빛을 지내고 있는 그 굳셈을 진실로 알아주는  
 이가 없을듯하구나.

190.

|   |                   |
|---|-------------------|
| 희저어듭거늘밤중만녀겼더니<br>덧업시볼가지니새날이되야괴야<br>歲月이流水ㄹ트니늡기설워호노라. | ▶희: 해<br>▶밤 중: 밤중 |
|---|-------------------|

해 저 어듭거늘 밤중만 여겼더니  
 덧없이 밝아지니 새 날이 되었구나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으니 늡기를 서러워하노라.

191.

|   |  |
|---|--|
| 제分조흔줄을ㅁ음에定후에<br>功名富貴로草屋을바꿀손가<br>世俗에버서난後   自行自處호리라 | ▶밭고다: 바꾸다<br>▶초옥: 풀로 이은 집, 초가집<br>▶자행자처: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하여 처리함 |
|---|--|

제 분수가 좋은 줄을 마음속으로 정한 후에는  
 공명부귀로 초옥을 바꿀 수 있는가  
 세속에 벗어난 후면 알아서 행동하고 알아서 처신하리라.

192.

|   |  |
|---|--|
| 天理를 알 작시면 天道   라 타 닐 모 르 리<br>忠孝大義는 修身에 들 닌 느 니<br>事業을 절의로 행 하면 기을 혼 가 흐 노 라. | ▶ 들 니 다: 달려 있다<br>▶ 기: 그것이<br>▶ 절의: 절개와 의리 |
|---|--|

천리를 알고 있다면 천도라고 누가 모르리  
충효와 대의는 수신에 달렸느니  
일을 행할 때 절의로 행하면 그것이 옳은가 하노라.

193.

|  |   |
|--|---|
| 德으로 일 삼으면 제 분수인 줄 모 르 며<br>懲忿을 저 버 보 면 窒慾인 들 닐 모 르 리<br>學文을 보 배 로 아 야 버 리 고 취 함 이 딱 맞 으 리 라. | ▶ 저 버 보 다: 접어보다, 용서하다<br>▶ 질욕: 욕심을 막는 것<br>▶ 거취: 버리기와 취하기<br>▶ 적중: 과부족이 없이 꼭 맞음 |
|--|---|

덕으로 일 삼으면 제 분수인 줄 모르며  
노여움을 참으면 욕망을 막게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리  
학문을 보배로 알아야 버리고 취함이 딱 맞으리라.

194.

|   |  |
|---|--|
| 말씀을 굴 회 여 내 면 결을 일 이 바 히 업 고<br>無逸을 조 하 흐 면 貪慾인 들 이 실 소 나<br>一毫   나 밧 기 일 하면 헛 工夫인 가 흐 노 라. | ▶ 굴 회 다: 분별하다, 가리다<br>▶ 바히: 전혀, 아주<br>▶ 무일: 편안함을 바라지 않는 마음<br>▶ 밧기: 밖에 |
|---|--|

말씀을 가리어 내면 싸울 일이 전혀 없고  
부지런함을 좋아하면 탐욕인들 있을 소나  
한 터럭이라도 그 밖의 것을 일하면 헛 공부인가 하노라.

195.

|  |                                |
|--|--------------------------------|
| 어 저 내 말 들 소 君子 工夫 다 한 후 에<br>死生 을 닐 알 관 디 老小 로 드 탈 손 가<br>그 래 도 餘日 이 이 시 니 學文 이 나 흐 리 라. | ▶ 어 저: 아      ▶ -관 디: -관테, -기에 |
|--|--------------------------------|

아, 내 말 들 소 군자 공부 다 한 후에  
삶과 죽음을 누가 알기에 노소로 다탈손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 학문이나 하리라.

196.

|  |   |
|--|---|
| 사 람 이 삼 기 後 에 天性 을 가 저 이 서<br>善惡 을 분 별 흐 면 孔孟 인 들 부 를 소 나<br>이 밧 기 說 話 만 흐 니 그 를 몰 라 흐 노 라 | ▶ 삼 기 다: 생기다, 태어나다<br>▶ 만 흐 다: 많다<br>▶ 설화: 성선설 이외의 다른 이야기 |
|--|---|

사람이 태어난 후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선악을 분별하면 공맹인들 부러울소냐  
 이밖에 다른 말들도 많으니 그것은 몰라 하노라

197.

|  |   |
|--|---|
| 아버지 날 낳으셔 어질과자 길러내니<br>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질겠느냐<br>아마도 至極 恩德을 못 내가파흐노라. | ▶어질과자: 어진 사람이 되도록<br>▶가파흐노라: 못 다 갚을 것 같아 안타깝다 |
|--|---|

아버지 날 낳으셔 어질고자 길러내니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질겠느냐  
 아마도 지극한 은덕을 못 갚을 것 같아서 안타깝다.

198.

|  |   |
|--|---|
| 우리 몸 갈라 난들 두 몸이라 하지마소<br>分形連氣 흐니 이니론 兄弟니라<br>兄弟야 이 뜻을 아라 自友自恭 흐자스라 | ▶분형연기: 형체는 나누어 있지만 기는 잇닿아 있다<br>▶자우자공: 스스로 우애를 공손히 한다 |
|--|---|

우리 몸 갈라 난들 두 몸이라 하지마소  
 비록 형체는 나누어져 있지만 기는 닿아있으니 이것이 바로 형제니라  
 형제야 이 뜻을 알아 스스로 우애를 공손히 하자꾸나.

199.

|   |                                       |
|---|---------------------------------------|
| 男女有別 흐줄 사람마다 알련마는<br>學文을 모르면 알기 아니 어려우랴<br>眞實로 國法이 이시니 無別無行 흐지마라. | ▶어려운: 어려운<br>▶무별무행: 분별없고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 |
|---|---------------------------------------|

남녀유별한 줄 사람마다 알련마는  
 학문을 모르면 알기 아니 어려우랴  
 진실로 국법이 있으니 분별없이 행동하지 마라.

200.

|   |  |
|---|--|
| 저무니 어른 피셔 간 데마다 차례 못 알면<br>無地 흐 愚氓들도 아니 아지 못 흐려니<br>하물며 人倫을 알려 흐면 이 아니 코어이리 |  |
|---|--|

젊은이 어른 모셔 간 데마다 차례만 알면  
 무지한 우맹들도 아니 알지 못하려니  
 하물며 인륜을 알려하면 이 아니하고 어이리.

201.

|  |  |
|--|--|
| 남으로서 親한 사람 벗이라 닐러시<br>有信 곳 아니 하면 사 쫓 줄 이 이 실 소 나<br>우리 눈 어진 벗 아라 서 責善 을 바 다 보 리 라. | ▶ 유신(有信) 곳 아니 하면: 믿지 못할 것 같으면<br>▶ 책선(責善): 친구사이에 서로 선 행 을 행 하<br>도 록 권 고 하 는 것      ▶ 사 괴 다: 사 귀 다 |
|--|--|

남으로서 친한 사람을 벗이라 말하였으니  
 서로 간에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 사 쫓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어진 벗을 사귀어서 착한 일을 권하는 충고를 받아보리라.

202.

|  |   |
|--|---|
| 鄉黨 은 禮 브 르 니 어 니 사 례 무 禮 하 리<br>無 知 혼 소 년 들 이 年 齒 를 제 몰 라 도<br>그 러 나 人 形 을 가 저 시 니 비 화 알 가 호 노 라 | ▶ 연치: 나이<br>▶ 인형(人形): 람의 걸 모양, 자기 의지대로<br>행 동 하 지 못 하 는 사 람 을 비 유<br>▶ 비호다: 배우다 |
|--|---|

향당은 예의가 발라 어느 사람 무례하리      \*향당: 향리에 사는 사람들  
 무지한 소년들이 제 나이를 몰라도  
 그러나 사람의 걸모양을 가졌으니 배워 알까 하노라

最樂堂

朗原 諱侃字和叔號最樂堂 宣祖大王之孫仁興君之子

♥작자소개

최락당(낭원군 郎原君;1640~1699) 본명은 이간(李侃). 호는 최락당(最樂堂)이다. 선조의 12째 아들 인흥군(仁興君)의 아들이며 효종의 당숙이다. 왕실작가중 가장 많은 시조 작품을 남겨 총 30수의 시조가 전한다. <청구영언>진본에 20수가 전하고 나머지는 여러 시조집에 산재한다. 그의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작품에 대한 다소의 평이 있다. 금서생활(琴書生活)에 낙사무궁(樂事無窮)함을 자랑하며 취흥이 도도하면 유령(劉伶), 이백(李白)이래로 혼자만이 취흥을 안다고 자랑하는 노래들로 자신의 풍류를 담고 있다. 오륜과 향당의 예법에 관한 노래와 자신의 수분(守分) 생활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표현 기법에서 정철이나 황진이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보여 이는 선인들의 작품을 애독한 때문이라고 한다. 형 낭선군(郎善君)과 함께 전서·예서를 잘 써 송광사, 백련사의 사적비등을 남겼다. 왕족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시·음주·음률·서예 등을 즐기는 생활로 예술적 생애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작품소개

173 爭友停도라드러最樂堂閑暇흔디 / 琴書生涯로樂事 | 無窮흐다마는 / 이밖기淸風明月이야어니그지이시리.

정우정 돌아들어 최락당 한가한데 / 금서생애로 낙사무궁하다마는 / 이밖에 청풍명월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 금서생애(琴書生涯): 거문고와 책으로 즐기는 한가한 생활.

∴ 낙사무궁(樂事無窮): 즐거운 일이 끝이 없음.

∴ 밖기: 밖에 ∴ 어니: 어느, 무슨 ∴ 그지: 끝

174 山은잇건마는물은간디업다 / 晝夜로흐르니나쁜물이이실소냐 / 아마도千年流水는나도몰라호노라.

산은 잇건마는 물은 간 데 없다 / 주야로 흐르니 남은 물이 있을소냐 / 아마도 천년유수는 나도 몰라 하노라.

175 돌은언제나며술은뉘삼긴고 / 劉伶이업슨後에太白이도간디업다 / 아마도무를되업스니홀로醉코놀리라.

달은 언제쯤 떠오르며 술은 누가 만들 것인가 / 유령(劉伶)이 없는 후에도 이태백이 간데 없구나! / 아! 물어 볼 데가 없으니 나 혼자 맘껏 취하고 놀리라.

∴ 삼기다: 지어내다, 만들어내다 ∴ 유령(劉伶): 당나라때 8대 대음주가중 한사람.

176 이도聖恩이오더도聖恩이라 / 모도신公子님니아는가모로는가 / 眞實로이뜻을아르서  
同樂太平호오리라.

이도 성은이요 저도 성은이라 / 모이신 공자님네 아는가 모르는가 / 진실로 이 뜻을  
알아서 동락태평하오리라.

∴ 모도신 < 모도다: 모오다 ∴ 동락태평(同樂太平): 함께 즐기며 편안하게 지내다

177 이술이天香酒 | 라모다대되슬타마소 / 令辰에후後에解醒杯다시호새 / 호물며聖代를  
만나아니醉코어이리.

이 술이 천향주라. 우리 모두 다 싫다 마소. / 좋은 때 취한 후에는 해장술을 다시 하  
세. / 하물며 태평성대를 만났으니 아니 취하고 어찌하리오.

∴ 天香酒(천향주): 하늘이 내린 향기로운 술. ∴ 令辰(영신): 좋은 때  
∴ 解醒盃(해정배): 해장술 ∴ 모다: 모두 ∴ 대되: 모두  
∴ 슬타: 싫다

178 天賢山느린물을金谷村에흘려두고 / 玉流堂에지은뜻을아는다모르는다 / 眞實로이  
뜻을알면날인줄을알리라.

천보산 내린 물을 금곡촌에 흘려 두고 / 옥류당 지은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 진실로  
이 뜻을 알면 날인 줄을 알리라.

∴ 느리다: 내리다

179 玉流堂조탕말듯고金谷村에드러가니 / 天寶山下에玉流水入뿐이로다 / 두어라樂山樂  
水를알리업서호노라.

옥류당 조탕 말 듣고 금곡촌에 들어가니 / 천보산하에 옥류수뿐이로다 / 두어라 요산  
요수를 알리 없어 하노라.

∴ 요산요수(樂山樂水): 산수(山水)를 좋아함

180 山아首陽山아伯夷叔齊어되가니 / 萬古淸節을두고간줄늬아드니 / 어즈버堯天舜日이  
야親히분가호노라.

산아 수양산아 백이 숙제 어디 가니 / 만고청절을 두고 간 줄 누가 알더니 / 아아. 요  
천순일이야 친히 분가 하노라

∴ 어즈버: 아아, 아아 슬프다  
∴ 만고청절(萬古淸節): 한없는 세월의 깨끗한 정절

181 太公의 釣魚臺를계유구러츠자가니 / 江山도그지업고志槩도새로왜라 / 眞實로萬  
古英風을다시본듯하여라.

태공의 조어대를 겨우 다시 찾아가니 / 강산도 끝이 없고 지개도 새로워라 / 진실로  
만고영풍을 다시 본 듯 하여라.

∴ 계유: 겨우 ∴ 구러: 다시 ∴ 지개(志概): 어떤 사물을 이루려는 의기, 의  
지  
∴ 조어대(釣魚臺): 낚시터 지와 기개

182 灤河水도라드니師尙父의 釣磯로다 / 渭水風煙이야古今속에다를소냐 / 어즈버玉  
璜畢事를親히본듯하여라.

난하수 돌아드니 사상부의 조기로다 / 위수풍연이야 고금에 다를소냐 / 아아. 옥황상  
제를 친히 본 듯하여라.

∴ 조기(釣磯): 낚시질하는 자리 ∴ 위수풍연(渭水風煙): 물 이름 바람 연기  
∴ 고금(古今): 옛날과 지금

183 首陽山는린물이釣魚臺로가다하니 / 太公이낙던고기나도낙가보련마는 / 고기至今히  
업스니물동말동하여라.

수양산 내린물이 조어대로 가더니 / 태공이 낚던 고기 나도 낚아 보련마는 / 그  
고기 지금 없으니 물동말동하여라.

∴ 하니: -니

184 日月도네과갓고山川도依舊히되 / 大明大物은쇼절업시간되업다 / 두어라天運이循環  
하니다시불가하노라.

해와 달도 옛날과 다름 없고 산과 강도 예전과 다를 바가 없거늘 / 대 명나라의 문화와  
산물은 속절 없이 간 곳이 없구나 / 그래도 천운이 순환하니 대 명나라의 천지를 다시  
불까 하노라.

∴ 依舊(의구)하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거늘  
∴ 大明文物(대명문물): 대 명나라의 문화와 산물  
∴ 네: 예, 옛적 ∴ 속절업다: 속절없다 ∴ 두어라: 두어라

185 笛童을아피세고楓嶽을츠자오니 / 神仙은어디가고 鶴巢만나만논고 / 아므나赤松子  
만나든날왔더러닐러라.

적동을 앞에 세고 풍악을 찾아오니 / 신선은 어디가고 학소만 남았논고 / 아무나 적송  
자 만나면 날 왔더러 일러라.

∴ 알피: 앞에 ∴ 세다: 세우다 ∴ 적동(笛童): 피리부는 아이  
∴ 풍악(楓嶽): 단풍나무 있는 큰 산 ∴ 학소(鶴巢): 두루미, 학의 보금자리

186 平生에일이업서山水間에노니다가 / 江湖에넘자되니세상일다니제라 / 엇더타江山風  
月이그벗인가하노라.

평생에 일이 없어 산수간에 노닐다가 / 강호의 임자 되니 세상 일 다 잊어라 / 어찌 하여 강산풍월이 그것이 벗인가 하노라.  
∴ 남자: 임자 ∴ 잊더타: 어찌하여 ∴ 괴: 그것이

187 天恩이 ㄹ이 업서 代마다 ㄹ혀 두고 / 太平聖世에 가플 일이 어려 왜라 / 두어라 爲國忠心을 永世不忘 ㅎ오리다

천은이 끝없어 대마다 ㄹ어두고 / 태평성세에 갓을 길이 어려워라 / 두어라 위국충심을 영세불망하오리다.  
∴ ㄹ이업다: 가없다, 끝없다 ∴ ㄹ혀다: ㄹ다 ∴ 두어라: 두어라  
∴ 위국충심(爲國忠心):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  
∴ 영세불망(永世不忘): 영원히 잊지 않음

188 石上에 白枯桐을 석자만 버혀내면 / 一張玄琴이 自然이 되련마는 / 아마도 高山流水를 알리 업서 ㅎ노라.

석상에 자오동을 석자만 베어 내면 / 일장현금이 자연히 되련마는 / 아마도 고산유수를 알 이 없어 하노라.  
∴ 버히다: 베다, 자르다 ∴ 일장현금(一張玄琴):  
∴ 고산유수(高山流水): 높은 산에 흐르는 물

189 솔아심긴솔아네어이 심겼는다 / 遲遲澗畔을 어디 두고 예와섯는 / 眞實로 鬱鬱한 晚翠를 알리 업서 ㅎ노라

소나무야 너는 어떻게 심어졌기로 / 느릿느릿 흐르는 산골짜기 냇물가를 어디 두고 혼자 여기와 서있느냐? / 소나무의 무성한 숲이 늦도록(언제까지나) 푸른빛을 지내고 있는 그 굳셈을 진실로 알아주는 이가 없을 듯하구나.  
∴ 심긴: 심어진 ∴ 심겼는다: 심어졌는가  
∴ 遲遲澗畔(지지간반): 느릿느릿 흐르는 산골짜기 냇가  
∴ 鬱鬱(울울)한 晚醉(만취): 울울창창 무성한 숲이 늦도록(언제까지나) 푸른 빛을 지니고 있는

190 희져어둑거늘 밤중만 여겼더니 / ㄹ업시 불가지니 새 날이 되야 괴야 / 歲月이 流水 ㄹ트니 늑기 설워 ㅎ노라.

해 저 어둑거늘 밤중만 여겼더니 / ㄹ없이 밝아지니 새 날이 되었고야 / 세월이 유수 같으니 늑기를 서러워하노라.  
∴ 희: 해 ∴ 밤중: 밤중

191 ㄹ分 ㄹ혼 줄을 ㄹ음에 ㄹ定 ㄹ후에 / 功名富貴로 草屋을 밧골 손가 / 世俗에 버서난後 | 白行 白處 ㅎ리다.

제 분 좋은 줄을 마음에 정한 후에 / 공명 부귀로 초옥을 바꿀손가 / 세속에 벗어난 후  
면 자행자처 하리라.

∴ 밧고다: 바꾸다 ∴ 초옥(草屋): 풀로 이은 집, 초가집

192 天理를알작시면天道ㅣ라타뉘모르리 / 忠孝大義는修身에돌넌느니 / 事業을절의로행  
하면기을훈가호노라.

천리를 알작시면 천도라타 뉘 모르리 / 충효대의는 수신에 달렸느니 / 사업을 절의로  
행하면 그것이 옳은가 하노라.

∴ 돌니다: 달리다 ∴ 기: 그것이 ∴ 절의(節義): 절개와 의리

193 德으로일삼으면제分인줄제모르며 / 懲忿을저버보면窒慾인들뉘모르리 / 學文을보비  
로아라야去取適中호리라.

덕으로 일 삼으면 제 분인줄 제 모르며 / 정분을 접어보면 질욕인들 누가 모르리 / 학  
문을 보배로 알아야 거취적중 하리라.

∴ 제: 제, 제가, 저의 ∴ 저버보다: 접어보다, 용서하다  
∴ 거취(去取): 버리기와 취하기 ∴ 적중(適中): 과부족이 없이 꼭 맞음

194 말슴을굴회여내면결을일이바히업고 / 無逸을조하호면貪慾인들이실소냐 / 一毫ㅣ나  
밧기일호면헛工夫인가호노라.

말씀을 가리어 내면 겨를 일이 전혀 없고 / 무일을 좋아하면 탐욕인들 있을소냐 / 일  
호나 밖에 일하면 헛 공분가 하노라.

∴ 굴히다: 가래다, 가르다, 분별하다, 가리다 ∴ 바히: 바이, 전혀, 아주  
∴ 밧기: 밖에

195 어저내말듣소君子工夫다호後에 / 死生을뉘알판디老小로드틀손가 / 그려도餘日이이  
시니學文이나호리라.

아, 내 말 듣소 군자공부 다 한 후에 / 사생을 누가 알기에 노소로 다틀손가 / 그래도  
여일이 있으니 학문이나 하리라.

∴ 어저: 아 ∴ -판디: -판데, -기에

196 사람이삼긴後에天性을가져이셔 / 善惡을分別호면孔孟인들부를소냐 / 이밧기說話만  
호니그를몰라호노라.

사람이 태어난 후에 천성을 가져 있어 / 선악을 분별하면 공맹인들 부러울소냐 / 이  
밖에 설화 많으니 그를 몰라 하노라.

∴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 만호다: 많다 ∴ 설화(說話): 이야기

197 어버이 날 나 낳으셔 어질과자 길러 내니 /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질소냐 / 아마도至極  
훈恩德을 못내 가파호노라.

어버이 날 낳으셔 어질고자 길러 내니 /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질소냐. /  
아마도 지극한 은덕을 못내 갚아 하노라.

∴ 어질다: 어질다 ∴ 과자: -고자

198 우리 몸 갈라 난들 두 몸이라 아지마소 / 分形連氣호니이니론兄弟니라 / 兄弟야이뜻을아  
라自友自恭호자스라.

우리 몸 갈라 난들 두 몸이라 하지마소 / 분형연기하니 이 이른 형제니라 / 형제야 이  
뜻을 알아 자우자공하자스라.

∴ 분형연기(分形連氣): 형체는 나누어져 있지만 기는 잇닿아 있다

∴ 자우자공(自友自恭): 스스로 우애를 공손히 한다

199 男女有別호줄사람마다알년마는 / 學文을모르면알기아니어려온라/ 眞實로國法이이  
시니無別無行호지마라.

남녀유별한 줄 사람마다 알년마는 / 학문을 모르면 알기 아니 어려우랴 / 진실로 국법  
이 있으니 무별무행하지 마라.

∴ 어려운: 어려운

200 저무니어른모셔간데마다차례곳알면 / 無知호愚眠들도아니아지못호려니 / 호물며人  
倫을알려호면이아니코어이리.

젊은이 어른 모셔 간 데마다 차례만 알면 / 무지한 우맹들도 아니 알지 못하려니 / 하  
물며 인륜을 알려 하면 이 아니하고 어이리.

∴ 곳: 곳(處), 곧(則), -곳, -만

201 남으로써親호사람벗이라닐러시 / 有信곳아니호면사귄줄이이실소냐 / 우리논어진벗  
아라셔貴善을바다보리라.

남으로써 친한 사람이 벗이라 말하였으니, /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 사귄 수가 있겠느  
냐? / 우리는 어진 벗을 사귀어서 착한 일을 권하는 충고를 받아 보리라.

∴ 有信(유신)곳 아니하면: 만약 미더웁지 않을 것 같으면

∴ 貴善(책선): 친구사이에 서로 선행을 행하도록 권고하는 것.

∴ 사귀다: 사귀다

202 鄉黨은禮브르어니사람無知호少年들이 / 年齒를제몰라도그러나人形을가져시니 / 비  
화알가호노라.

향당은 예의가 발라 사람 무지한 소년들이 / 나이를 때에 몰라도 그러나 사람의 겉모양을 가졌으니 / 배울가 하노라.

∴니 : 네, 사(四) ∴연치(年齒): 나이

∴인형(人形): 사람의 겉모양,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

∴비호다: 배우다

191 제分조흔줄을마음에定한後에 / 功名富貴로草屋을뺏아손가 / 世俗에버서난後 | 白行白處하리라.

제 분 좋은 줄을 마음에 정한 후에 /功名 부귀로 초옥을 바꿀손가 / 세속에 벗어난 후면 자행자처 하리라.

∴뺏고다: 바꾸다

∴초옥(草屋): 풀로 이은 집, 초가집

192

193 덕으로일삼으면제分인줄제모르며 / 懲忿을저버보면窒慾인들뉘모로리 / 學文을보벼로아라야去取適中하리라.

덕으로 일 삼으면 제 분인줄 제 모르며 / 징분을 접어보면 질욕인들 누가 모르리 / 학문을 보벼로 알아야 거취적중 하리라.

∴제: 제, 제가, 저의

∴저버보다: 접어보다, 용서하다

∴거취(去取): 버리기와 취하기

∴적중(適中): 과부족이 없이 꼭 맞음

194 말숨을굴회여내면걸을일이바히업고 / 無逸을조하하면貪慾인들이실소냐 / 一毫 | 나뺏기일하면헛工夫인가하노라.

말숨을 가리어 내면 겨를 일이 전혀 없고 / 무일을 좋아하면 탐욕인들 있을소냐 / 일호나 밖에 일하면 헛 공분가 하노라.

∴굴히다: 가래다, 가르다, 분별하다, 가리다

∴바히: 바이, 전혀, 아주

∴뺏기: 밖에

195 어져내말듣소君子工夫다한後에 / 死生을뉘알관디老小로드틀손가 / 그러도餘日이이시니學文이나하리라.

아, 내 말 듣소 군자공부 다 한 후에 / 사생을 누가 알기에 노소로 다틀손가 / 그래도 여일이 있으니 학문이나 하리라.

∴어져: 아

∴-관디: -관대, -기에

196 사람이삼긴後에天性을가져이셔 / 善惡을分別하면孔孟인들부를소냐 / 이뺏기說話만하니그를몰라하노라.

사람이 태어난 후에 천성을 가져 있어 / 선악을 분별하면 공맹인들 부러울소냐 / 이  
밖에 설화 많으니 그를 몰라 하노라.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만흐다: 많다 ∴설화(說話): 이야기

197 어버이 날 낳으셔서 어질과자 길러 내니 /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질소냐 / 아마도至極  
훈恩德을 못내가파흐노라.

어버이 날 낳으셔서 어질고자 길러 내니 /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질수 있겠  
는가. / 아마도 지극한 은덕을 못 갚을 것 같구나.  
∴어질다: 어질다 ∴과자: -고자

199 男女有別 훈줄 사람마다 알년마는 / 學文을 모르면 알기 아니어려운라 / 眞實로 國法이 이  
시니 無別無行 하지 마라.

남녀유별한 줄 사람마다 알년마는 / 학문을 모르면 알기 아니어려운라 / 진실로 국법  
이 있으니 무별무행하지 마라.  
∴어려운: 어려운

200 저 무니어른 피셔 간 데마다 차례만 알면 / 無知 昏愚 眠들도 아니아지 못하려니 / ㅎ물며 人  
倫을 알려 하면 이 아니코어이리.

젊은이 어른 모셔 간 데마다 차례만 알면 / 무지한 우맹들도 아니 알지 못하려니 / 하  
물며 인륜을 알려 하면 이 아니하고 어이리.  
∴곳: 곳(處), 곧(則), -곧, -만

201

202 鄉黨은 禮 ㅂ르어 너사롬 / 無知 昏少年들이 年齒를 제 몰라도 / 그러나 人形을 가져 시니 ㅂ  
화알가흐노라.

향당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니 / 무지한 소년들이 나이를 때에 몰라도 / 그러나 사람의  
겉모양을 가졌으니 배워 알까 하노라.  
∴너 : 네, 사(四) ∴연치(年齒): 나이  
∴인형(人形): 사람의 겉모양,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  
∴비호다: 배우다